파수꾼이 지켜야할 두 현실성

(에스겔 3:1~27)

16. 칠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20.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 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21.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파수꾼이 지켜야 할 두 현실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파수꾼이 지켜야 할 두 현실성'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의미에서의 두 현실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임명을 받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호밀 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은 J.D.샐린저(J.D.Salinger, 1919-2010)가 1951년에 발표한 자전적 장편소설입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20세기 최고의 소설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16세 소년 홀든 콜필드는 영어를 제외한 네 과목에서 모두 낙제를 하게 됩니다. 결국 퇴학을 당하게 되었는데 퇴학 통지서가 부모님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뉴욕거리에서 2박 3일을 전전합니다.
홀든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형은 할리우드에서 활약하는 시나리오 작가였습니다. 홀든은 미

국의 중산층의 대표적 모습을 띄는 집안에 속해있었습니다. 이러한 집안의 홀든은 기성세대의 추악한 속물근성과 지식인 계층의 위선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상에 대해 문제아이자 패배자가 되기를 자처하게 됩니다.
홀든은 뉴욕의 뒷골목을 떠돌면서 위선과 속물근성으로 가득 찬 현실 세계를 직면하고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실감에 대한 자기구원의 방책으로써 스스로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홀든의 상상 속의 직업으로써 절벽 위에 있는 호밀밭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호밀밭에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뛰놀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은 아무 생각 없이 뛰놀던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호밀밭은 대도시에서 벗어난 오염되지 않은 곳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뛰노는 아이들은 인간이 지닌 순수성의 상징입니다. 홀든은 인간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와 위선과 속물근성에 찌들지 않은 아이들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업으로 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가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이한 16살 소년 홀든을 통해서 세상의 타락을 지적하고 순수함을 살리는 것을 통해 구원의 방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홀든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자 결심할 때에 상상을 하게 한 실마리에 대한 것입니다. 홀든이 2박 3일 동안 뉴욕거리를 헤매며 타락한 문명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된 이질적인 광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뉴욕 센트럴파크에 있는 연못의 오리 떼였습니다.
홀든에게 뉴욕은 부와 번영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타락과 위선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찌들어버린 도시 한복판에 연못이 있는데 여기서 살아가는 오리들은 전혀 문명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호밀밭에 뛰노는 아이들이라는 상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살면서도 인간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가는 오리 떼와 같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아이들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파수꾼이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홀든은 아이들의 순수성을 지켜야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써 지켜야만 하는 호밀밭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또 에스겔로 대표되는 참 선민은 무엇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참 선민이 파수꾼으로서 지켜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두 가지의 현실성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물이 되신다는 현실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터미네이터 되신다는 현실성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되심의 현실성이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현실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실제 현장입니다. 다만 현실

은 무수한 사실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실에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현실이 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내가 마음을 보태고 내 마음이 가서 닿는 사실만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는 인도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유럽이 사실로써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현실이 되지는 못합니다. 내가 인도나 아프리카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들이 인도에 있는 삼성의 지사에 나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인도는 내 삶의 현실이 됩니다. 아들에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곳이 곧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된 것입니다.
천국도 이와 같습니다. 천국은 사실로써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처럼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물 되심의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마치 인도나 아프리카처럼 무관하게 여겨지고 망각되어 있습니다. 참 선민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물 되심의 현실성을 지켜내는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터미네이터 되신다는 현실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시작되고 하나님이 끝내실 때에 끝나게 됩니다. 백합화 한 송이가 피었다 지는 것이나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몸에 관련된 건강이나 가족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시작되고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체라는 사실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묻히고 망각되었습니다. 참 선민이라면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터미네이터 되심을 현실로써 지켜가는 파수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끝내실 때에만 끝나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현실성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에스겔과 참 선민의 파수꾼으로써의 사명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의 환상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본래 인간의 마음에는 날개가 상징하는 하늘을 추구함이 있었습니다. 또 인간의 육체는 바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 살아가게 되어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라고 날개와 바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마음에 날개가 있었고 육체에는 바퀴가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마음에 날개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자이고 육체에는 바퀴가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자입니다.

날개는 바로 보물을 찾아가는 날개입니다. 우리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채워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채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보물을 찾아다니게 되지만 본래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는 날개가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곧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과도 상통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터미네이터가 되십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으십니다. 말씀드렸듯이 본래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시작되고 하나님이 끝내실 때에만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터미네이터로 일하실 때에 우리의 지정의(知情意)를 장갑으로 삼으셔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은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터미네이터 되심의 현실성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육체에 바퀴가 달려있음을 망각한 채 스스로의 발로 걷고 뛰면서 인생의 이력을 써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듯이 하나님과 천국도 사실로써 존재합니다. 그리고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바퀴가 돌아가면서 진행되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것이 잊히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줄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 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전도를 격려하기 위해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성도들은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세요"라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뜻하는 바는 결코 이러한 전도를 강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선 파수꾼이 지켜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두 현실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파수꾼이 해야 하는 일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두 현실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선 파수꾼의 마음이 온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7~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강퍅하여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입장을 고수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을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타락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에서는 날개가 떨어졌고 육체에서는 바퀴가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 되심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에서 보물을 찾아 마음을 채우려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또 육체는 바퀴가 상징하는 터미네이터와 같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 강퍅하고 고집스럽게 하늘을 주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보물을 찾고 세상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칭되게 하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이마는 곧 향해야 될 방향의 상징입니다. 또 마음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굳건한 마음가짐의 파수꾼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굳건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돈의 힘을 믿고 건강을 행복의 조건으로 믿습니다. 가족을 최우선의 현실로 여깁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이렇게 굳건한 마음가짐으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현실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이 과연 천국을 현실로 느끼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보물 되심이 나의 현실성이 되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파수꾼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더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물 되심의 사실을 확실한 현실로써 느낀다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전달하기에 앞서 나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앞에서 사업과 행복은 관계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좋다고 믿는 사람 앞에서 그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돈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돈 벌어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말해줄 수 있게 됩니다. 파수꾼으로써의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반드시 이런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아왔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으로 대표되는 돈과 건강과 학벌과 외모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전도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시켜서 하거나 상 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하는 전도는 진정한 전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전도했기 때문

에 대한민국의 교인 수는 자꾸 줄어만 갑니다.
마음에서는 세상을 보물로 여기고 현실로 붙들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전도하고자 하니 될 리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의 보물 되심의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인도나 아프리카가 사실로서 존재함에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국과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사실로서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망각한 채로 전도한다면 결코 파수꾼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호밀밭의 파수꾼의 소설 속에 나오는 뉴욕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모두가 보물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려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세상에 대해 굳은 마음이 될수록 종교를 좋아하게 됩니다. 종교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바퀴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을 현실로써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보물 되심의 사실을 현실로 지켜내야만 합니다. 또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내 주체성이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끌려지는 바퀴달린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전도 또한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써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도는 오히려 세상에 대한 자기 주체성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결과적으로 교인 수도 자꾸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을 바에는 굳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뉴욕시내 한복판의 센트럴파크 연못에 떠있는 오리 떼처럼 순수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현실성을 지켜내는 파수꾼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편 파수꾼은 박탈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뉴스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와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의 편도 될 수 없습니다. 진보측이나 보수측에 설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현실성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세상에서 누구의 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편도 될 수 없습니다. 일본편이 될 수도 없고 중국 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 편에 선 파수꾼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파송지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현실성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물 되심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일깨워서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깨워 줘야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터미네이터처럼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현

실로써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깨워 줘야합니다.
물론 우리가 파수꾼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두 가지 현실성을 회복하고 천국을 표현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존재할 것입니다. 7절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물 되신다는 사실은 속된 말로 대박 정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원죄의 체질이 유전자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보물 되심의 현실성에 취해있고 하나님의 터미네이터 되심의 주체성을 통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를 어려서부터 묶어놓고 날지 못하게 하면 커서도 날아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서는 날개가 떨어져버렸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조차 가지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에 대한 그리움을 넣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사실이 제거되고 망각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면 반갑게 하늘을 자기의 현실로 붙잡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대한 그리움을 넣어준 날개 떨어진 독수리였기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섭리와 계획의 바퀴를 통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 발로 뛰고 내 발로 걸어서 이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받아들인다고 해서 한 순간에 기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하늘이 현실이 된다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도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서 갈팡질팡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자녀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일이 성취되는 좋은 때에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전함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반면에 날개 떨어진 독수리가 아니라 뱀인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셨습니다. 뱀은 긴 몸이 완전히 땅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기어 다니는 특징을 가진 동물입니다.
똑같이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되심을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대한 그리움을 넣어주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 완전히 제거된 채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들조차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뱀이 완전히 배를 땅에 붙이고 살아가듯이 이들은 마음을 땅에 붙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마음은 완전히 땅에 붙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목회에서 기쁨을 얻고, 예배당 건축에서 기쁨을 얻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

습니다.
날개 떨어진 독수리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다만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보물 되심의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인 자가 기쁨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날개 빠진 독수리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거나 활성화되거나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네 마음이 먼저 파수꾼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물 되심의 사실을 현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터미네이터 되심의 사실이 현실이 됨으로써 이 세상을 공짜로 사는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센트럴파크 연못의 오리 떼처럼 오염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넣어준 하늘에 대한 그리움을 일깨워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 이 세상의 어떤 편에도 서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늘을 현실성으로 내 속에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대한 그리움을 넣어준 사람들의 그리움을 일깨워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두 현실성에 대한 그리움을 일깨워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계신 분으로써 느끼고 싶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보물 되심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그리움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의 보물 되심과 터미네이터 되심의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 생활화가 답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에서 보물을 찾으려는 원죄의 근성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날개가 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터미네이터 되심이 나의 현실이 되십니다. 이렇게 됨으로써만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원수 속에 하나님이 활성화되지 않은 하늘에 대한 그리움을 넣어두셨을 수 있고 오히려 배우자가 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뱀인지 날개 빠진 독수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뱀으로 규정되었든지 독수리로 규정되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두 현실성을 유지시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물 되심과 터미네이터 되심의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하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정의를 장갑 삼으신 하나님이 표현되도록 하면 됩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현실성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호밀밭의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현실성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늘 그리움을 넣어주신 사람들을 속속들이 발굴해 내는 기가 막히는 보배로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